

나, 너, 우리

배움의 庭園



임효경
완도중 교장

어느새 5월입니다. 하얀 꽃이 대세입니다. 올해 유난히 길가에서 세력을 떨치는 아카시아 꽃이 주렁주렁 달려 창문 좀 열어보라고 유혹합니다. 달짝지근한 향기를 주겠노라고. 창문을 열고 꿀벌들의 존재를 확인해 봅니다. 너무 더워도 너무 추워도 안 되는데... 안전한 기후 환경 속에서 왕성한 꿀벌들의 땀방울이 아카시아 꿀을 걱정 없이 사 먹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하얀 실 꽃머리에 인 이팝나무는 장합니다. 늙으신 어머니가 타향에서 돌아온 자식들에게 지친 몸과 맘 채우라고 고봉으로 담아주던 하얀 쌀밥이 생각나게 합니다.

5월은 좀 돌아보는 달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너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는 5월. 완도중도 3월엔 새 학기 준비하느라 휘몰아치듯 분주했습니다. 4월엔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나 힘들다고 탄 짓거리하고, 선생님들도 그러는 너희 밍다고 외치는 소리들로 시골벽적 난리가 났습니다.

5월이 반갑습니다. 숨과 심이 있는 달이니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로 서로 주고받는 달이니가요. 사실은 고마웠다고, 사실은 좋아했다고 서로 고백하고 법으로 정해진 날들이 있으니가요. 지금은 서로 '나'만 주장하고, '나'의 고통과 어려움이 제일 크다고 목소리 높이지만, 사실은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너'의 동행 덕분에 이만큼 성장했다고 고마움을 표현할 것이니가요.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서로 그렇게 하겠지만, 학교에서도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그러하지 않을까요? 북한 독재자도 무서워한다는 중2들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치고받고 하며 크는 것 아닐까요? 내 자녀만 소중한다고 부모들이 나서서 싸우

지 말고, 손잡고 이해하고, 서로 위로해주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5월, 1학년 자유학기 체험의 날이었습니다. 학교 체육관에 4학년이 다 모여 학급단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학년 4반 활동 차례가 되었는데,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체육관에는 위기를 맞이한 듯, 동물적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4반 전체 학생들이 모두 한 아이를 중심으로 빙 둘러 섰습니다. 그 모습은 그 한 아이의 과격한 돌발행동을 막고 그 아이를 보호하려는, 아주 오래 된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그 한 아이는 자폐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책가방 들고 학교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학교에서 엄청 난 것들을 배웁니다. '나'를 키우고, 세우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배우지만, '너'랑 축구하고, 이야기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면서 때론 싸우고 또 화해를 하고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모여 이 사회를 운행하게 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후에도 지속하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때도 학교 밖으로 뛰쳐나간 그 아이를 모두 찾아 나서서 데리고 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보고 실천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그 한 아이로 인해 우리도 배웁니다. 서로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세상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아침마다 눈 마주침 없이 슬쩍 하이라이프를 하며 쟁 걸음으로 교문을 들

어서는 그 아이를 보며 나도 아침이 새로 왔습니다. 온 우주가 다 함께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구나 싶어 세상이 아름다웠거든요.

물론 나를, 그리고 내 가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지상과제입니다. 그렇다고 나만, 내 가족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는 '우리' 학교이거든요. 학생들이 책가방 들고 학교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학교에서 엄청 난 것들을 배웁니다. '나'를 키우고, 세우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배우지만, '너'랑 축구하고, 이야기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면서 때론 싸우고 또 화해를 하고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모여 이 사회를 운행하게 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후에도 지속하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나만 강조되고 나만 소중한 사회가 나아갈 미래는 암담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기피하고, 아이는 더 더욱 낳지 않을 것 이니가요. 여차피 이 생(生)에 태어났으니 그럭저럭 살아가지만 연애, 결혼,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더 이상 고생안하고, 더 이상 희생도 하고 싶지 않다는 우리 젊은이들.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에겐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 내느라 애썼구나, 이젠 탈진 상태로 더 이상의 비교와 경쟁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것이구나 싶어 그들에게 미안합니다. 나는 어떤 말로 그들을 가르치고, 더 힘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늙어가고 이젠 어린 학생들과 함께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간 힘을 써서 '나+너=우리'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나처럼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 장면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들을 우리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고 그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길 감히 바랍니다. 이 찬란한 5월에.



기고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축제 패러다임의 전환 무등산인문축제

유럽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축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참상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유럽 문화의 부흥을 이끌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제 재건과 지역 정체성, 예술의 대중화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변화 과정에서 축제적인 연희형태가 새롭게 부각되었다. 1946년 칸 필름 페스티벌을 기점으로 1947년 아비뇽 페스티벌, 영국의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그것이다. 전쟁 당시국이었던 독일에서는 나치 정권에 자행됐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반성과 자각으로 1955년, 카셀 도쿠멘타(Documenta)가 시작되었다.

한때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이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많은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년마다 전국 축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데, 2016년 통계에 의하면 무려 13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방자치체 시행으로 2000년대 이후 지역축제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유독 우리나라만 축제가 많을까? 축제의 나라인 프랑스는 체계를 갖춘 축제만 골라봐도 6000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이웃 일본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축제가 2만여 개가 있다고 하니 가히 마쓰리(Matsuri)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역의 고유성을 반영한 지역축제이다. 단오제, 춘향제, 줄다리기 등 비교적 오래된 축제들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축제가 많게는 30~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축제에서부터 10년이 채 안 된 축제들까지 다양하다. 지난 10여 년 간 정부의 지역축제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가 공감하다시피 축제는 문화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활성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을 매개로 지역 경쟁력의 원천이자 지역브랜드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소멸화 시대에 어찌 보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유리한 문화적 기제이자

문화 콘텐츠이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지역의 많은 축제가 지나치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와 같은 외형적 성과에만 몰두해 왔다. 당연히 축제의 본질적인 의미와 과정, 가치가 간과되었으며 지역축제의 부작용과 더불어 근래에는 축제 무용론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데에는 일차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축제기획자, 연구자, 시민들도 공동의 시대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살아온 압축성장의 시대에는 축제의 고유기능과 문화적 맥락에서 중층적 의미를 해독할 여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보니 자연스럽게 축제의 경제적 효과, 관광 효과, 축제 만족도, 시민 참여도 등 축제의 외형을 둘러싼 결과치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도시형 축제가 봄을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광주 동구 '무등산인문축제'의 위상은 독특하다. 어느 축제처럼 외형적 축제를 지향하지도 않고, '인문도시 동구'의 비전과 가치를 축제로 내재화하고 프로그램으로 담아냈다. 축제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버거우면서도 기꺼운 짐을 진 셈이다.

올해 자연의 생기가 가장 충만한 6월 첫날, 이 도시를 온전하게 품고 있는 어머니 같은 무등산에서 인문 향연이 펼쳐진다. 지혜산책, 예술산책, 마음산책, 자연산책 인문도시 산책 등 다섯 가지 테마에 무려 26종류의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환대할 것이다.

많은 현대인들은 과잉 활동성으로 인해 평온의 결핍증을 앓고 있다. 인문적 삶의 또 다른 생활 세계는 삶에 대한 관조와 경이감, 아름다움의 동경, 주의 깊은 사색, 영원한 존재성에 대한 성찰 등의 경로를 안내한다. 이 길은 한병철이 '피로사회'에서 언급했듯이 '깊은 심심함'으로부터 기인하지만, 경험과 익숙함으로부터 탈출이 쉽지 않다. 도시적 삶의 주기가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짐을 위한, 지구를 위한, 내일을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인문의 숲, 동구인문축제에서 휴지기를 가져보는 것을 추천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